

## 여수산단 노후화 심각 중대사고 사상자 최다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중대사고 13건·사상자 33명  
전국 국가산단 중 가장 많아  
광양·대불도 사망 12명 발생

전남 산업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여수국가산단  
업단지의 중대사고 사상자가 국내 국가산단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국가산단은 울산 미포국가산단과 수도권  
한국수출산업단지에 이어 국내 국가산단 중 세번  
째로 오래된 산단으로, 대표적인 노후산단으로 꼽  
힌다.

특히 위험물로 간주되는 석유화학산업 비중이  
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데다, 산단 조성도 50  
년이 넘어가면서 노후 산단 개선 사업 등 예방 대  
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  
속 더불어민주당 이재관(충남 천안을) 의원이 한  
국가산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중  
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여  
수국가산단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는 13건, 사상자  
는 33명(사망 12명·부상 21명)으로 국내 20개 국

가산단 가운데 사상자가 가장 많았다.  
여수산단에 이어 사상자가 많은 곳은 울산 미포  
22명(사망 13명·부상 9명), 서울 디지털 21명(사  
망 4명·부상 17명), 온산 18명(사망 6명·부상 12  
명), 경남 창원 16명(사망 11명·부상 5명) 등 순  
이었다. 광양과 영암 대불산단에서는 각각 9명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한국산업관리공단은 사망사고와 재산피해 1억  
원 이상, 유해화학물질누출 사고를 중대사고로 판  
단한다. 최근 5년간 총 110건의 중대사고가 발생,  
90명의 사망자와 84명의 부상자 등 총 174명의 사  
상자와 136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산단  
중 97%(107건)가 20년 이상의 노후산단인지에  
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산단공에서는 20년 이상 된 국가산단을 노후산  
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중대사고 발  
생건수가 많고 가능성도 높은 노후산단임에도 여  
수산단을 비롯한 광양과 영암산단의 산단공 소속  
안전전담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산단  
공은 전국 67개 산단의 안전관리인력 31명을 운영  
중인데, 이마저도 분사 소속 총괄담당 인력을 제  
외하면 지역에 분배된 직원은 20명뿐이다.

앞선데 댈친격으로 여수산단의 주력인 석유화  
학산업이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및 중동의 공급  
과잉에 따른 부진을 겪으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올 상반기 신용평가사들은 실적 악화에 빠진 국  
내 석유화학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했고, 여수산  
단 가동률도 지난 3월 기준 82.5%로, 전년 같은  
달(84.0%)보다 1.5%포인트 감소했다. 이 때문에  
여수산단 안팎에선 공장 폐쇄설과 가동 중단설 등  
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와 도의회가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  
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데 여수산단 살리기  
에 집중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  
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역시 정부를 상대로 '탄소중립형 친환경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유치 조성에 사  
활을 걸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산단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  
장의 견인역할을 해오고 있지만 중대사고가 발생  
한 국가산단단지 대부분이 노후산단단지인 탓에  
앞으로 대형재난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가장 기초적인 안전문제부터 경각심을 가  
지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KIA 타이거즈, 2024 시즌 우승 트로피...KS 출정식



25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 앞서 허구연 KBO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정규시즌' 우승 트로피 시상식이 열렸다. 이범호 감독을 비롯한 주장 나성범, 투수조장 장현식, 야수조장 박찬호 등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 이날 경기가 끝난 뒤에는 기아 선수단이 홈 팬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한국시리즈 출정식을 가졌다. ▶관련기사 18면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5·18 조사 기록물, 광주 못오고 '표류'

진상조사위 4년간 서류 284만여쪽·자료 4.5TB 분량 확보  
청산팀 오늘 활동 종료...5·18기록관 등에 이관된 문건 없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조사위)가 수집·작성한 5·18 조사 기록물이 광주로 이관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

<관련 기사 6면>

5·18진상조사위 청산팀이 26일 법적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 자료를 이관할 주체가 없는 공백 상태가 된다.

2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5·18진상조사위 기록물 중 5·18기록관과 5·18기념재단 등 5·18 관련 기관·단체에 공식 이관된 문건은 전무하다.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으며, 광주로 이관하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록물은 역대 5·18 진상 규명 활동 중 수집한 5·18 관련 자료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군에서 대외비로 관리해오던 문서들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5·18진상조사위 활동 종료로 앞두고 5·18 연구자들의 자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5·18기록관과 5·18기념재단 등지로 이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 전문가들은 사료적 가치는 물론 진상규명 작업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자료로 평가하고 있다.

앞서 5·18진상조사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4년 동안 조사 활동을 하면서 서류 284만여쪽과 4.5TB(테라바이트)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기록 자료로는 1980년 5·18 전후로 청와대와 국방부, 계엄사령부(육군본부), 광주에 파견된 공수

특전연단과 제20·31사단, 전투병과교육사령부, 보안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중앙정보부, 경찰, 검찰, 전남도청, 광주시청 등 관련 기관이 생산·보관한 기록물이 수집됐다. 1800여건의 과거 5·18 피해자 증언과 법정 기록, 미국·일본 정부 등의 기밀 문서 등도 있다.

진술 자료로는 신군부 주요 인물과 계엄사령부 지휘부, 현장 지휘관, 시위진압 현장에 직접 투입된 사병 등 1520명의 군 관련 기록과 민간인 사망자, 행불자 유가족,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 등 1158명의 민간인 기록 등이 포함됐다.

한편 5·18진상조사위는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해 4년간 조사 활동을 거쳐 총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15건을 진상규명했고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지난 6월 조사 내용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국회와 대통령실에 제출한 뒤 공식 해산했으며, 3개월에 걸쳐 기록물 이관 등 청산 작업을 해 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흥 잃어가는 농약... 설 무대가 없다 ▶7면

서건창-김도영 최다득점 행진 서로 칭찬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김해 가야테마파크 ▶27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으로 지역발전 가속화!

전남 대도약의 시작, 2025년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도로, 철도 등 SOC 예산 8년 연속 1조 원 이상 국비 확보!  
한국형 아우토반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검토 착수!

